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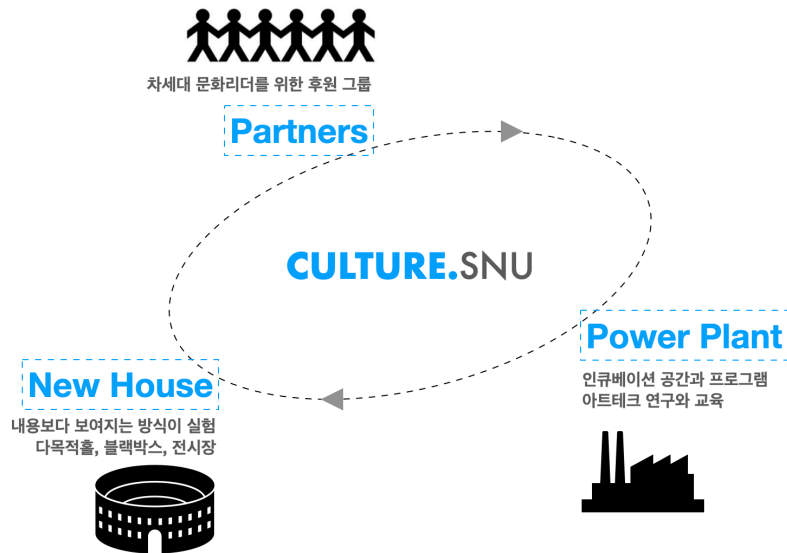
서울대 문화예술원 소개

세상이 기술의 시대를 넘어 문화력의 시대(culture turn)에 진입했다.

문화산업은 어느새 반도체 산업만큼 중요해졌다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지금의 문화는 기술과 시장에 의해 추동되며 어느때보다 강력해지고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기술 technology은 창작, 유통, 소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향유자 감성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변화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차세대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7월 ‘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문화원은 첨단 공연 전시 공간인 New House, 크리에이터 인큐베이션을 하는 Powerplant, 그리고 문화리더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인 Patners으로 구성됩니다.



Partners

문화리더/기업들이 재무적 참여나 전문적 참여를 합니다. 차세대 문화엔진을 키우기 위해 문화리더 기업의 자체 테마를 가져오거나 공통 주제로 크리에이터의 성장을 돕습니다.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멘토링과 스케일업 프로덕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HYBE	art center nabi	민음사	CJ	KCC
d'strict				

< 기업 참여 예시 >

New House

기존 문화관을 재건축합니다. 900석의 콘서트 주목적의 다용도홀, 300석의 침단 블랙박스, 오픈/폐쇄형 갤러리를 갖춘 새로운 시대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전시, 공연, 강연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모든 활동은 영상화되어 다양한 미디어로 접근 가능합니다.



〈 문화관 설계안 〉

Power Plant

문화원의 핵심인 인큐베이션을 담는 공간입니다. 매년 10여팀의 창작가를 선발하여 1년간 제작 실험을 하는 공간입니다. 서울대 파워플랜트를 리모델링한 창작의 아우라가 가득한 공간에서 파트너들의 펀딩을 통해 매년 10여팀의 아티스트, 프로듀서, 창업가를 선발하고 공간, 자원, 멘토링, 및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 파워플랜트 리모델링 예시 〉